

## 관악산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한다

204회 중앙종회 정기회 개최

총무원장 스님, 총본산 성역화 등  
3대 목적사업 예산승인 협조 당부

종회의장 성문스님 “승가위의 손상  
무분별 폭로 비방 강력 제재”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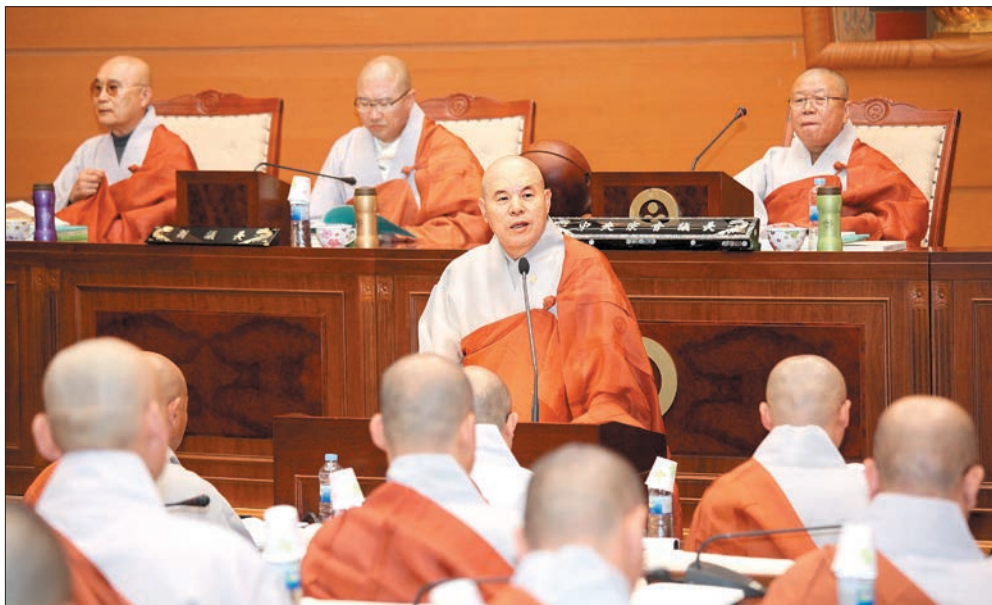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중정감사, 총림법·승려법·총무원법 등 중법개정안 등을 논의할 제204회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정기회가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정기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의원 78명 가운데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4회 정기회 인사말을 통해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를 확장하고자 하는 총무원의 경험과 소신이 담겨 있다”며 “직영사찰법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 △승려복지의 안정 △교구와 중앙의 발전 등 제34대 집행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법인 관리 문제, 종단 재정의 건전화, 종단 목적불사 등의 과제들도 차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잘 살펴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종도들의 가장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은 승가 전체의 위의를 손상시키는 각종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이라며 무분별한 폭로 및 비방시대 자체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는 2015년도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중정감사의 건을 시작으로 중앙종회의원 영답스님 의원 제명의 건, 중앙종회의원 정계동의의 건, 중법 제·개정 건, 중무보고의 건, 중책질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재심호계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위원과 2016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 임명 동의의 건,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의 건,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에 관한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에 이어 제204회 정기회는 안건을 채택한 뒤,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중정감사 실시를 위해 휴회했다. 정기회는 4일 오전 10시(11월3일 현재) 속개해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내년 3월 관악산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종단 목적사업 확장 소신” 지역 교구역할 확대 모색

#### ○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 선언’ 의미

지난 3일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직영사찰법 개정안이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를 확장하고자 하는 총무원의 경험과 소신”이라고 의미를 강조하며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의 뜻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직영사찰 관리인의 임명 절차를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행 직영사찰법에는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 권한이 총무원장 스님에게 부여돼 있다.

이번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은 지방행정 시대를 맞아 직영사찰의 실질적 인사권을 해당 교구로 이관하는 동시에 교구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제34대 집행부 핵심과제 등을 비롯해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스님이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회에서 직영사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종회에서 연주암 직영사찰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연주암을 비롯한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 추가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자비와 중생구제 원력’ 묵묵히 실천

산하 복지시설 182곳... ‘행복한 세상 열어갑니다’

### 23일 한국불교자비나눔축제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1995년 21곳에 불과했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182곳으로 대폭 늘었다. 2007년 복지시설 111곳 수탁으로 세 자리 숫자 시대를 연 이후 2012년 152곳을 넘어서 양적성장을 이뤘고, 이제는 복지시설 200곳 운영을 목표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활동 영역도 다양하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청소년시설, 가정가족지원센터, 노숙자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45곳, 어린이집은 46곳으로 두 영역을 합치면 50%를 차지한다.

재단 산하 시설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07곳으로 전체의 59%에 이른다. 영남은 39곳, 호남은 23곳, 충청은 10곳, 강원은 1곳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와 교구본사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이

란 모토 아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을 실천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계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개발·활용해 20년간 국민복지 진흥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종단을 대표하는 불교사회복지기관으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 대사회적 역할 및 사회공헌도를 확대해 한국 불교의 대내외적 위상도 높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20년을 준비하려면 종단을 비롯해 스님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또한 불교정신을 구비한 사회복지활동가의 안정적인 양산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상구보리 화해중생은 대승불교의 이념이고, 깨달음과 중생구제는 불교의 본령이며, 사회복지지는 인간 세상에 직접적인 시혜와 구제라는 목적이 있기에 불교와 사회복지는 공통의 접점이 있다”면서 “불교사상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복지와 ‘행복한 세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열어갑니다’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총무원장)은 오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한국불교자비나눔축제’를 갖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 사회

#### 2016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6불교신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 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2월 9일(수)까지
- 응모 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 분야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 :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평론 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불교문학에 한함)
- 상 금 : 단편소설 5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평론 3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당선작 발표 : 2016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67(권자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 담당
- 문의 :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www.dosolam.kr

선운사  
도솔암

미륵·지장성지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 이제는 미륵부처님 세상입니다

### 도솔암 미륵대재 동참권선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미래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미륵부처님은 부처님 열반 후 56억 7천만년 뒤에 인간계로 내려와 중생을 제도한 뒤 용화수 아래서 성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륵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한국 최고의 미륵·지장성지인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에서는 미래에 출현할 미륵부처님의 가피력을 얻기 위한 미륵대재를 33회(임제포함 34회)에 걸쳐 봉행합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선광부모님의 영가천도와 자녀임신을 비롯한 수험생 가족의 학업성취, 사업성취, 병마 극복 등 전국 불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발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이번 미륵대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도솔암 마애부처님의 영험어린 가피를 받원합니다.

### 도솔암 미륵대재 33재 봉행 안내

- 2재 불기2559(2015)년 11월 18일 오전 10시
- 3재~33재 매월 음력 7일
- 회향 불기2562(2018)년 6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도솔암 특별법단
- 동참금 108만원(총34회 기도)
- 동참계좌 : 농협 521030-51-001141 (예금주 : 도솔암)
- \*도솔암으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3일전에 연락 주시면 무료로 공양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도솔암

문의 (063) 561-0075 (도솔암 총무소)

주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보물제1200호로 지정된 도솔암 마애미륵부처님(교장 석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